

<자료문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9-9 3층 주식회사 마인드디자인 (02-2231-2013)

자라나는 우리 아이, 전통음식 체험으로 오감 교육 해볼까

- 11월 10일(토)~12월 9일(일) 서울어린이대공원서 '전통음식문화축제'
- 전통음식·김장김치 만들고 요리대회에 문화공연까지
- 가을철 가족 나들이와 체험교육을 한 번에

□ 자라나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무궁무진하게 발산시키는 놀이엔 무엇이 적합할까? 최근 어린이 정서발달과 창의력 증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 요리교육에 주목하는 부모가 많다. 손으로 직접 만지고 만드는 체험활동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생각주머니'를 넓혀가는 탁월한 교육법이기 때문이다.

□ 좋은 11월, 온 가족이 둘러 모여 전통음식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 꿈과 희망의 놀이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펼쳐지는 2018전통음식문화축제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는 11월 10일(토)부터 12월 9일(일)까지 매주 주말 서울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앞 체험장에서 '오순도순 어린이 전통음식만들기' 축제를 연다.

□ 올해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를 주제로 자녀는 물론 부모님까지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됐다.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함께하여 전문성을 한층 높였고, 8개 분야 명인들이 11개 프로그램을 맡아 어린이들과 전통음식을 매개로 만난다. 체험 일정과 프로그램 횟수도 대폭 늘려 지난해보다 2.3배 많은 2,110팀의 가족이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가을철 한 달 이상 진행되는 2018전통음식문화축제는 오순도순 어린이 전통음식 만들기, 아삭아삭 맛있는 김장김치 만들기, 하하호호 맛있는 쿡서트, 누가누가 맛있나 꼬마장금이대회까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이뤄졌다. 먼저 '오순도순 어린이 전통음식 만들기'는 11월 10일(토)부터 12월 9일(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하루 다섯 번 진행된다. 11월 10일 태극기 절편만들기를 시작으로 알록달록 꽃산병만들기, 고깔모양 고깔떡만들기, 꿀맛! 옛강정(한과)만들기, 꼬마 메주만들기, 반달모양 바람떡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일반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음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남북 평화 물결에 따라 북한음식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개성식 찰엿강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각 체험시간마다 어린이 50명이 참여할 수 있고, 앞치마와 두건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체험비는 4천 원.

□ ‘아삭아삭 맛있는 김장김치 만들기’는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하루 두 번 열린다. 한 시간 동안 어린이 70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만들기에 나선다. 체험 후 직접 만든 김장김치 1/2포기는 집으로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1/2포기는 복지관에 전달해 이웃돕기까지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 김장김치 체험에서도 앞치마와 두건을 선물하며, 체험비는 4천 원이다.

□ ‘하하호호, 맛있는 쿡서트’도 예정됐다.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 능동숲속의 무대에서 맛있는 뮤지컬 ‘셰프’를 시작으로 타악그룹 ‘진명’, ‘노라조, 리브하이, 청담동 독거미 썸’의 K-POP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가을 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누가누가 맛있나 꼬마장금이 대회’가 열린다.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30팀이 ‘잣솔끼우기’에 도전해 최고의 장금이를 선발한다. 대회 참가비는 4천 원이며,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온라인 접수(<http://bitly.kr/89xy>)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하고, 아이들의 오감으로 우리 전통음식을 기억하게 될 2018전통음식문화 축제가 곧 시작된다.

- 별첨 : 2018서울어린이대공원 전통음식문화축제 포스터 및 참가신청 QR코드
- 문의 : 주식회사 마인드디자인 (오태식/070-4722-7376)